참! 좋은 은행
IBK기업은행

직	성 명	전 화
팀 장	오 성 훈	6 5 8 8
팀 원	이 민 재	6 5 9 4

2011년 하반기 중소제조업 설비투자전망

(2011. 7)

차 례

【요 약】

Ⅰ. 2011년 하반기 중소제조업 설비투자 전망
1. 중소제조업 설비투자 전망 ····· 1
2. 업종별 설비투자 전망 ····· 4

Ⅱ. 2011년 하반기 중소제조업 설비투자 용도 및 자금조달처
1. 설비투자 용도 전망 ····· 5
2. 설비투자 자금조달처 전망 ····· 6

Ⅲ. 2011년 하반기 중소제조업 설비투자 여건
1. 설비투자 의사결정 요인 ····· 7
2. 설비투자 자금의 은행조달 시 애로사항 ····· 8
3. 설비투자 활성화를 위해 바라는 사항 ····· 9
4. 동종업계의 설비투자 확대시점 전망 ····· 10
5. 설비투자 확대시점 전망 ····· 11

부록 : 조사개요 ····· 12

IBK경제연구소
IBK Economic Research Institute

요 약

□ **2011년 하반기 중소제조업 설비투자**는 **전년 하반기**와 **비슷한 수준**을 유지할 전망

○ 금년 하반기에 설비투자를 실시할 중소제조업체의 비율은 24.4%로 조사되어 전년 하반기 전망치인 24%를 소폭 상회할 전망

□ **업종별**로는 **'기타 기계 및 장비'**, '자동차 및 트레일러' 등은 설비투자가 활발할 것으로 예상되나 '의료용 물 질 및 의약품', '가죽, 가방 및 신발' 등은 부진할 전망

□ **용도별**로는 66.4%가 **'기계장치'**에, 59.2%는 '공구, 비품 등 기타'에 투자할 계획이며, '건물 및 구조물', '차량·선박'에 각각 18.5%, 15.3% 투자할 계획

□ **자금 조달방법**은 90.5%가 **내부자금**을, 24.4%는 차입금을 이용할 것으로 나타남

□ **설비투자 자금의 은행조달 시 애로사항**으로는 **'높은 대출금리'**(40.4%), '애로사항 없음'(35.5%), '대출한도 부족'(20.0%)순으로 나타남

□ **설비투자 활성화를 위해 정책당국에 바라는 사항**으로는 **'내수경기 부양'**(48.7%), '조건이 양호한 정책자금 공급'(38.5%), '저금리기조 유지'(29.9%) 순으로 조사

□ **동종업계의 설비투자 수준**은 47.3%가 **전년도 수준**일 것으로 예상

□ **설비투자 확대시점** 전망은 **당분간 확대하기 어려울 것**으로 응답한 업체비율이 45.7%, 내년도로 예상한 업체는 24.9%로 조사

Ⅰ. 2011년 하반기 중소제조업 설비투자 전망

1. 중소제조업 설비투자 전망

□ '11년 하반기 중소제조업 설비투자는 전년 하반기와 비슷한 수준을 보일 전망

○ 하반기 설비투자를 실시할 중소제조업체의 비율은 24.4%로 조사되어 전년 하반기 전망치인 24%를 소폭 상회할 전망

- 상반기의 구제역, 원자재가격 상승 등의 영향이 완화되며 상반기에 조사한 하반기 전망치(21.0%)대비 3.4%p 상승

○ 상반기 설비투자 추정치는 30.2%를 기록하여 당초 전망치인 27.7%를 상회

○ 규모별 설비투자 전망은 중기업(37.6%)이 소기업(24.0%)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을 것으로 전망

○ 산업별로 보면, 중화학공업(27.3%)이 경공업(19.4%)에 비해 더 높은 투자비율을 보일 것으로 예상

○ 형태별로 보면, 가공조립 26.7%, 기초소재 26.1%, 가공조립 제조업 26.7%로 조사

중소제조업 설비투자 실시 업체비율 추이

(단위 : %, %p)

		2005년	2006년	2007년	2008년	2009년	2010년	2011년(전망)			차이 (2011년 -2010년)
								상반기	하반기	년간	
전 체		39.0	39.5	41.4	42.3	28.6	32.2	30.2	24.4	34.6	2.4↑
규모별	소 기 업	34.8	35.3	38.0	36.4	24.9	31.1	29.7	24.0	34.4	3.3↑
	중 기 업	69.3	71.9	68.6	69.2	41.5	47.9	46.3	37.6	50.4	2.5↑
산업별	경 공 업	34.3	33.7	35.9	36.8	27.3	28.6	25.2	19.4	29.1	0.5↑
	중화학공업	42.2	43.7	45.2	45.8	29.4	34.3	33.1	27.3	37.8	3.5↑
형태별	가공조립형	38.9	44.1	44.6	45.2	26.8	33.4	33.5	26.7	37.4	4.0↑
	기초소재형	46.7	41.3	45.3	43.3	32.0	33.7	31.1	26.1	36.4	2.7↑
	생활관련형	32.4	32.9	34.3	37.2	28.4	29.1	24.6	19.6	29.0	0.1↓

1.1 설비투자 실시 사유

□ '11년 상반기 설비투자 사유는 '노후설비 개체 및 보수', '차량, 선박, 공구, 비품 등 구입', '기존제품의 생산력 증대' 등의 순으로 응답

○ 상반기 설비투자는 신제품 생산, 기술개발과 품질향상, 공장 자동화 등 향후 생산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투자에 대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게 조사

□ '11년 하반기에는 상반기대비 경기개선에 대한 기대로 설비투자를 실시할 것으로 기대

○ 하반기에는 상반기대비 '내수경기호전 기대'(6.4%→8.9%), '신규사업 진출'(4.1%→6.6%), '기술개발 및 품질향상'(17%→19.3%)이 차지하는 비율이 증가

설비투자 실시 사유

(단위 : %, 복수응답)

노후설비의 개체 및
기존제품의 생산력
차량, 선박, 공구, 비품 등
기술개발 및 품질
신제품
공장 자
내수경기호전
신규사업

1.2. 설비투자 미실시 사유

□ '11년 상반기 설비투자 미실시 사유는 '기존 설비만으로 충분', '국내수요 불투명', '수익성 저하' 등의 순으로 응답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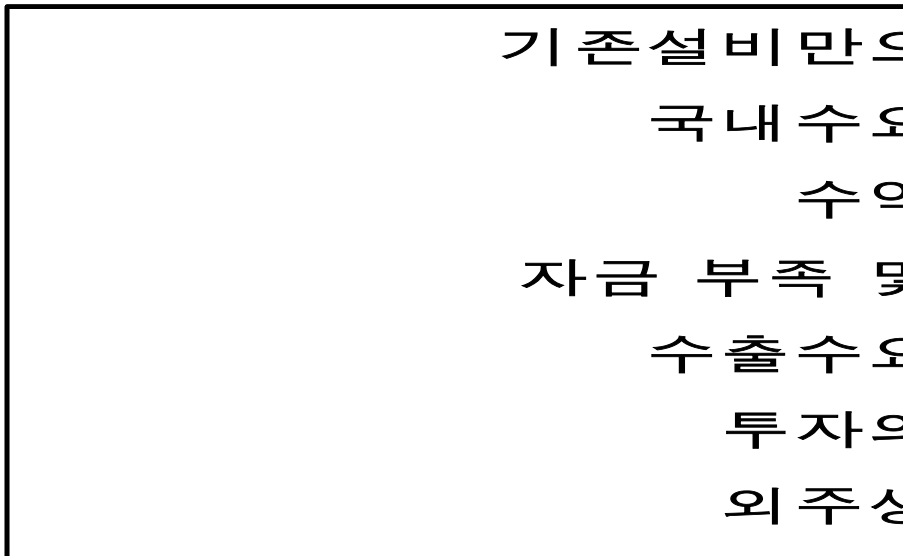
□ 상반기대비 하반기의 응답비율을 살펴보면 '기존설비만으로 충분'의 응답비율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

○ 상반기 설비투자 실시로 하반기에 설비투자를 실시하지 않을 업체의 비율이 증가(3.8%p↑)

○ 상반기 대비 대내외 경기불확실성이 완화됨에 따라 설비투자 미실시 사유 중 '국내수요불투명'(4.1%p↓), '수익성저하'(3.4%p↓) 등의 응답비율이 감소

설비투자 미실시 사유

(단위 : %, 복수응답)



2. 업종별 설비투자 전망

□ '11년 하반기 설비투자는 상반기대비 업종별로 차이를 보일 전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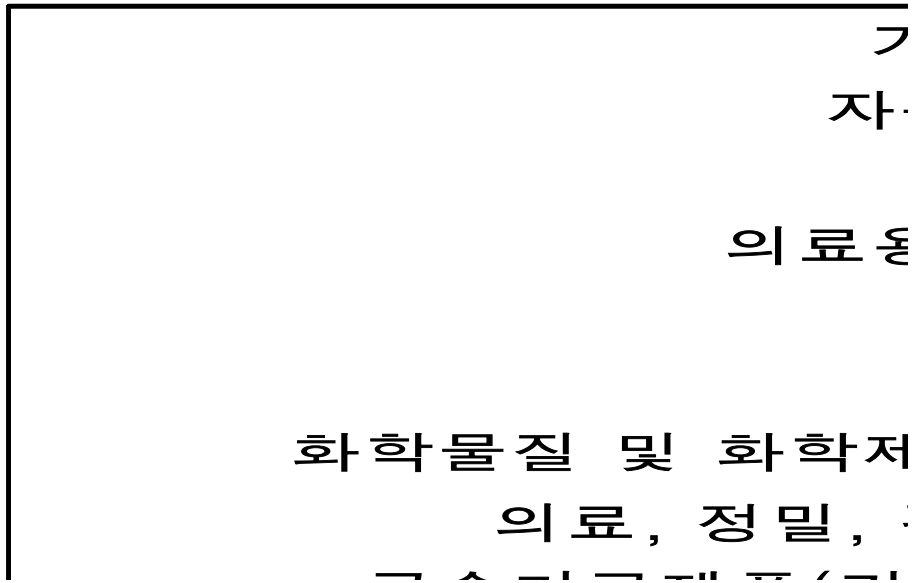
○ 하반기에는 '기타 기계 및 장비'(34.8%), '자동차 및 트레일러'(33.8%), '1차금속 제조업'(32.5%) 등의 업종의 설비투자가 상대적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질 전망

○ 상반기대비 설비투자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종은 '기타기계 및 장비'(7.7%p↑), '가구'(6.3%p↑), '펄프,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'(5.0%p↑) 등이며,

○ 반면, 축소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종은 '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'(8.0%p↓), '가죽, 가방 및 신발'(5.7%p↓), '금속가공제품 제조업'(5.0%p↓) 등으로 조사

업종별 설비투자 업체비율

(단위 :%)



Ⅱ. 2011년 하반기중소제조업 설비투자 용도 및 자금조달처

1. 설비투자 용도 전망

□ '11년 용도별 설비투자는 상반기대비 '공구·비품 등 기타'에 대한 투자를 제외하고 전체적으로 부진할 전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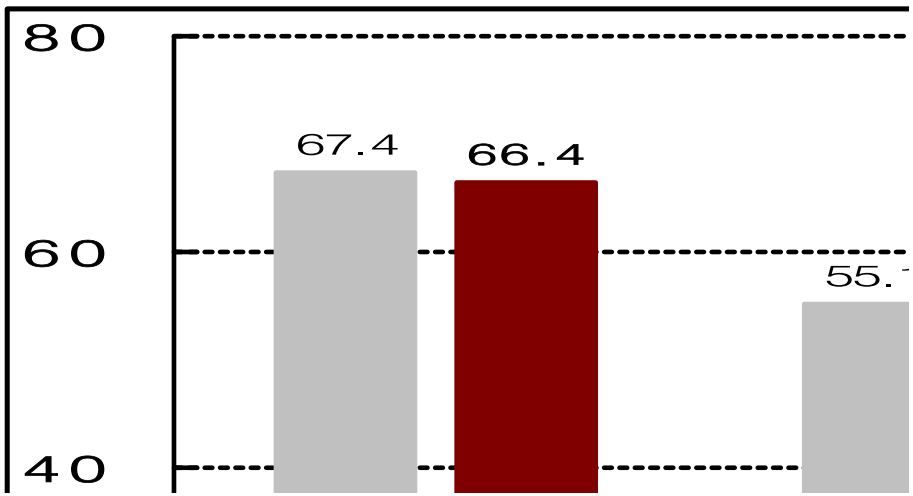
○ 설비투자 실시업체의 투자처 비율은 '기계장치'(66.4%), '공구·비품 등 기타'(59.2%), 건물 및 구조물(18.5%), 차량·선박과 건물 및 구조물(15.3%), 공장용지(4.7%) 순으로 응답

○ 상반기 대비 '차량, 선박 등의 운송장비'(12.4%p↓)에 대한 투자는 축소될 것으로 전망되는 반면, '공구, 비품 등 기타'(4.1%p↑)에 대한 투자는 확대될 것으로 예상

○ 생산능력 증대를 위한 설비투자보다는 '공구, 비품 등'에 대한 최소한의 설비투자를 설시할 전망

설비투자 실시업체의 투자처 비율

(단위 : %, 복수응답)



2. 설비투자 자금조달처 전망

□ '11년 설비투자를 예정중인 업체의 자금 조달방법으로 90.5%가 내부자금을 이용할 계획이며 24.4%는 차입자금을 사용할 것으로 응답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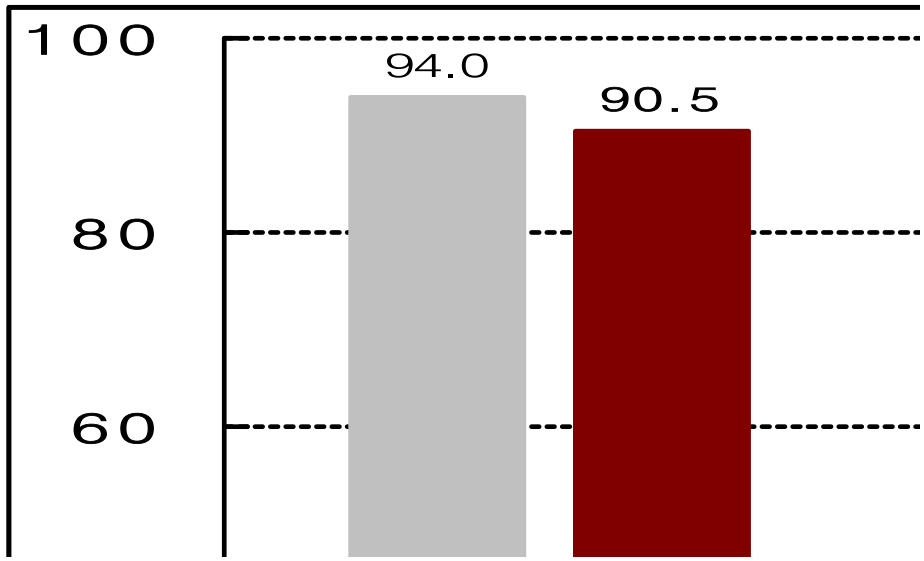
○ 설비투자 자금 조달방법은 상반기와 비슷한 응답추이를 보인 가운데, 대부분 내부자금을 이용할 예정이며, 증자 및 회사채 발행은 부진할 전망

○ 내부자금에 대한 높은 의존도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나, 하반기에는 상반기대비 차입금을 이용할 업체의 비율(4.2%p↑)이 증가할 전망

○ 설비투자 자금 조달방법으로 차입금을 사용할 업체 중 은행자금을 이용할 업체의 비율은 72.4%로 조사되어 상반기대비 4.0%p 증가할 것으로 조사

설비투자 실시업체의 자금조달처 비율

(단위 : %, 복수응답)



Ⅲ. 2011년 하반기 중소제조업 설비투자 여건

1. 설비투자 의사결정 요인

□ 설비투자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주된 요소로는 내수경기(66.4%), 설비의 노후화(47.7%), 거래처 주문량(42.4%) 순으로 응답

○ 상반기대비 '내수경기'가 설비투자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비율이 1.4%p 감소하였으며, '거래처의 주문' 역시 2.0%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

○ 반면, 여전히 낮은 금리수준과 은행권의 대출영업 확대에 따라 '자금조달 사정 및 조달금리'는 상반기대비 3.7%p 증가

설비투자 의사결정 요인

(단위 : %, 복수응답)

설비
거래
자금조달 사정 및
향후 사업전망에 대한 경영
신

2. 설비투자 자금의 은행조달 시 애로사항

□ 설비투자 자금을 은행으로부터 조달 시 애로사항으로는 40.4%가 '높은 대출금리'를 지적 했으며, 35.5%는 애로사항이 없다고 응답

○ 상반기 대비 '높은 대출금리'를 지적한 업체비율은 1.1%p 증가

○ '애로사항 없음'으로 응답한 업체의 비율은 상반기 대비 2.0%p 감소

설비투자 자금의 은행조달 시 애로사항

(단위 : %, 복수응답)

높은 대출금리
애로사항 없음
대출한도 부족
담보부족
적기차입 곤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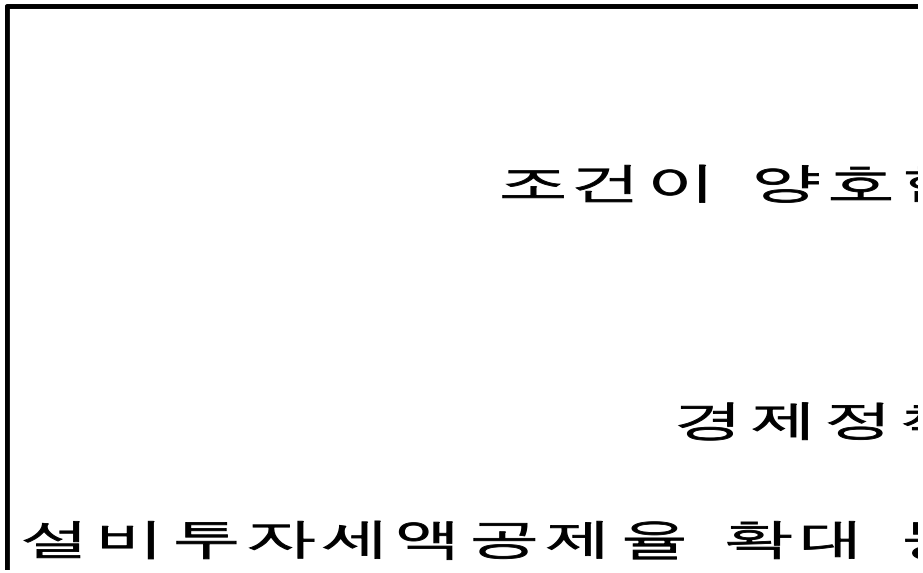
3. 설비투자 활성화를 위해 바라는 사항

□ 설비투자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'내수경기 부양'(48.7%)이 가장 필요한 것으로 응답

○ '내수경기 부양'(48.7%)과 더불어 '조건이 양호한 정책자금 공급'(38.5%), '저금리기조 유지'(29.9%) 등도 주요 희망사항으로 응답

설비투자 활성화와 관련하여 정책당국에 바라는 사항

(단위 : %, 복수응답)



4. 동종업계의 설비투자 확대시점 전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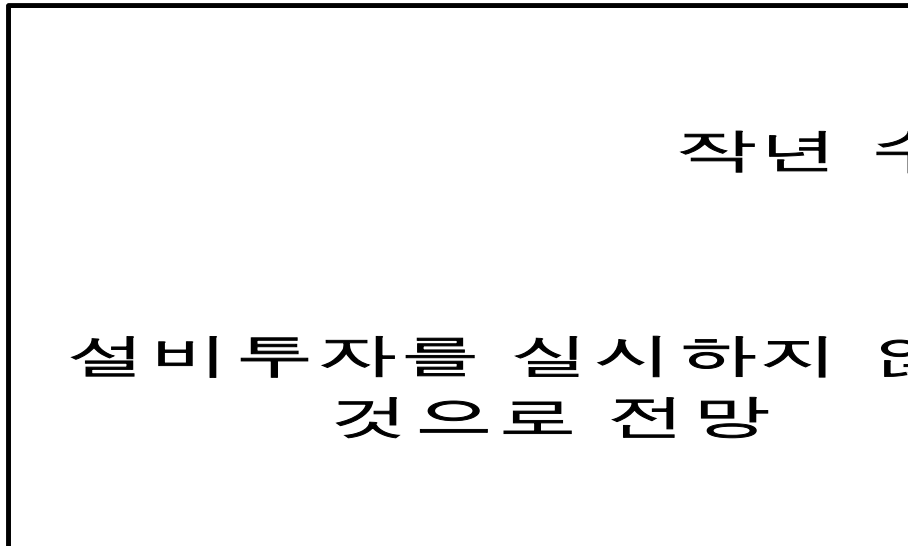
□ '11년 동종업계의 설비투자는 작년 수준에 머무를 것으로 전망

○ 응답업체의 47.3%가 동종업계의 설비투자는 작년 수준에 머무를 것이라 응답했으며, 설비투자를 실시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한 업체비율은 27.8%를 차지

○ 전년도 설비투자 수준보다 확대될 것으로 예상한 업체비율(11.8%)보다 축소될 것으로 예상한 업체의 비율(13.1%)이 더 높아 금년도 설비투자는 개선되기어려울 전망

동종업계의 설비투자 확대시점 전망

(단위 : %, 복수응답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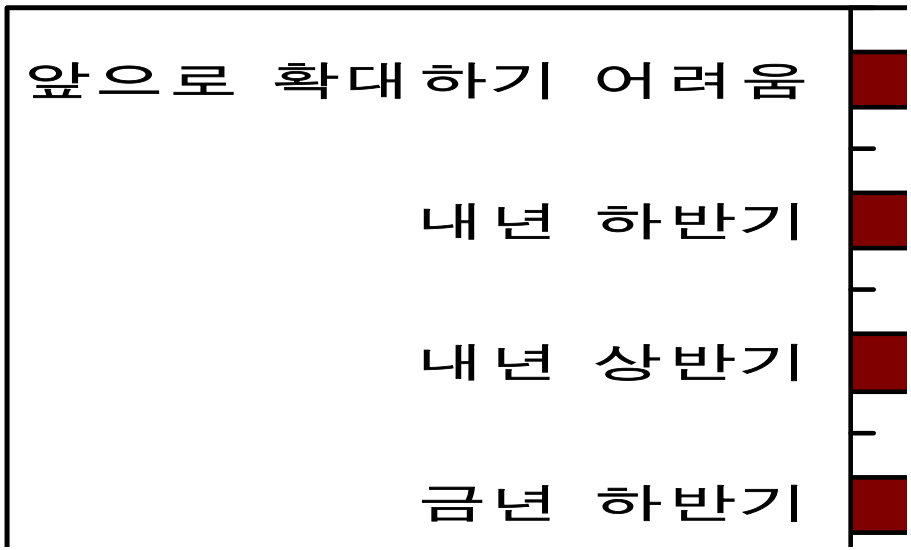
5. 설비투자 확대시점 전망

□ 설비투자의 확대시점에 대해 45.7%가 앞으로 확대하기 어렵다고 응답

○ 경기 회복세가 둔화됨에 따라 상당수 중소제조업체들은 설비투자실시를 내년 이후로 미루는 것으로 나타남

설비투자 확대시점 전망

(단위 : %, 복수응답)



<부록> 조 사 개 요

□ **조사목적 및 조사결과 공표**

중소제조업의 설비투자 실태를 파악하여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정책수립과 당행 금융업무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으며, 조사결과는 당행 홈페이지에 공표

□ **조사지역, 대상 업체 및 응답률**

○ 조사지역은 전국을 대상으로 종사자수 5~300인 미만 중소제조업체 가운데 업종 및 종사자수를 감안해 3,070개 사업체를 선정

○ 2011년 상반기 중소제조업 설비투자 응답률 : 89.2%

□ **조사표본 구성**

○ 모집단 : 통계청 '광업·제조업통계조사'의 종사자수 5~300인 미만 중소제조업체

○ 표본 : 중소제조업 24개 업종 중 담배제조업(12), 코크스·연탄·석유정제품제조업(19)을 제외한 22개 업종을 종사자 규모별로 6개 구간으로 세분한 132개 층에서 단순임의추출(표준오차 ±3.5%, 신뢰수준 95%)

□ **조사방법 :** 임시조사원이 조사대상 업체를 직접 방문하여 작성 후 회수

□ **조사실시 기간 :** 2011년 7월 1일 ~ 7월 18일

□ **특수 분류기준**

○ **산업별**

- **경공업 :** 식료품 제조업(10), 음료 제조업(11), 섬유제품 제조업 ; 의복제외(13), 의복,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(14), 가죽, 가방 및 신발 제조업(15),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; 가구 제외(16),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(18),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(22),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(21), 가구 제조업(32), 기타 제품 제조업(33)
- **중화학공업 :** 펄프,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(17),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; 의약품제외(20),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(21),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(23), 1차 금속 제조업(24),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; 기계 및 가구 제외(25), 전자부품, 컴퓨터, 영상,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(26), 의료, 정밀,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(27), 전기장비 제조업(28),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(29),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(30),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(31)

○ **형태별**

- 가공조립 :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; 기계 및 가구제외(25), 전자부품, 컴퓨터, 영상,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(26), 의료, 정밀,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(27), 전기장비 제조업(28),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(29),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(30),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(31)
- 기초소재 :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; 가구제외(16), 펄프,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(17),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; 의약품 제조업(20),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(22),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(23), 1차 금속 제조업(24)
- 생활관련 : 식료품 제조업(10), 음료 제조업(11), 섬유제품 제조업 ; 의복제외(13), 의복,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(14), 가죽, 가방 및 신발 제조업(15),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(18),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(21), 가구 제조업(32), 기타 제품 제조업(33)

○ **규모별**

- 종사자수 기준 : 소기업(5~49인), 중기업(50~299인)